

대선 D-13

BBK 수사결과 후폭풍...정국 격랑

反李 결집... 양자구도 급속 재편

鄭·曁 등 주요후보 일제히 유세 중단...특검 도입 등 공동전선

대통합신당 특검법 발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BBK 주가조작 사건이 무관하다는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대선 구도는 '한나라당 후보 대 반 한나라당 후보군'간의 양대 전선으로 편성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특히,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검찰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거리를 나서고 있어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이명박 후보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의 임시국회 처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 범여권에서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국민의 여망을 무시한 '제2의 탄핵 사태'라며 이를 계기로 범여권 대선 후보들이 조속히 단일화를 이뤄

한나라당 후보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5일 대통합민주신당은 검찰의 BBK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신당 선대위는 이날 유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낮 12시 명동에 이어, 오후 6시에 광화문에서 신당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의 편파수사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었다.

정동영 후보는 이날 오후 MBC 라디오에 출연, "이번 발표는 상식을 탄핵한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도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단암빌딩 2층 선거사무소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듣고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국민적 의혹을 전혀 풀지 못한 발표"라고

주장했다.

이회창 후보 선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저녁 광화문에서 규탄 집회를 갖는 한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부패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도 "이 나라가 재벌 공화국, 검찰 공화국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며 "국민과 함께 범국민 저항운동을 벌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특히,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 검찰의 검경준서 회유 및 협박 의혹에 대한 진위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날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긴급 유세를 갖고 "대한민국 검찰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이날

오후 종로에서 열리는 검찰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이명박 후보도 이날 "검찰의 판단과 국민의 판단은 다르다"고 반발했으나 민주당은 "특검이나 저항운동 등은 수사의 공정성을 판단한 이후 검토해 볼 일"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날 오후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특검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검찰 중간수사 결과와 관련,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더 나은 자세로, 국민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선 투표용지 인쇄

대통령 선거일을 2주일 앞둔 5일 선관위의 지정을 받은 광주 동구 금동동의 한 인쇄소 직원이 투표 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후보가 사상 최대인 12명에 달해 투표용지 길이도 22.1cm로 역대 대선 중 가장 길다. 선관위는 오는 13~14일 실시되는 부재자투표에 앞서 오는 10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와 투표안내문,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내년 광주비엔날레 '열린 미술축제'로

9월5일 개막...도심 곳곳 활용

주제없는 전시로 '파격'을 내세운 '2008 광주비엔날레'가 광주의 역사와 문화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는 주요 시설을 전시장으로 활용한 '열린 현대미술 축제'로 치러진다. 비엔날레 전시는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66일간 열린다. (관련기사 15면)

오쿠이 엔위저(Oku Enwezor)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은 5일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열린 제104차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시 기본개념과 전시구성 등을 발표했다.

내년 비엔날레가 기존 행사와 달리 광주시립미술관과 1980년 광주를 상징하는 5·18기념문화센터 등을 전시장으로 활용키로 한 것은 비엔날레 개최도시 광주를 세계적인 문화교류의 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이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관객 동원용 축제'를 없애고 순수 미술축제로서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을 재점검하게 된다.

여기에도 재단 이사회는 100억원의 비엔날레 예산을 80억으로 삭감하는 대신, 전시행사 예산을 지난 6회 대회보다 5억원 증가한 46억으로 편성, 전시행사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일보 탐사보도 '온누리안 리포트' 국제 앰네스티 언론상 수상

9월5일 개막...도심 곳곳 활용

광주일보의 기획탐사보도물인 '온누리안(국제결혼 다문화가정 리포트)'(정후식·홍행기·최현배·최경호 기자)가 국제앰네스티 주관 '제10회 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961년 창설된 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는 런던 사무국을 중심으로 약 150여 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이다.

5일 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따르면 올해 '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자로 광주일보의 '온누리안 리포트'와 세계일보의 '신와 임상시험의 숨겨진 진실' 등 2편이 선정됐다. 이 상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매년 세계 평화와 인권 신장에 기여한 언론(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올해가 10회째다.

앰네스티는 '온누리안 리포트'의 선정에 대해 "그동안 '코시안'이란 이름으로 소외돼 온 이주여성가정의 문제점 및 대안을 심층 보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며 "무엇보다 취재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보도의 깊이가 어느 보도와는 차별화됐다"고 밝혔다.

광주일보는 '다문화사회'에 걸맞은 공존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월 '온누리안'의 삶을 집중 조명한 6부작의 탐사기획물을 취재·보도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명박 BBK 의혹 모두 무혐의

검찰 "주가 조작·다스-BBK 실소유 입증 증거 없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소유 및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5일 이 후보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했다.

그러나 범여권 등은 이번 수사결과가 '눈치보기 수사'의 산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 매각자금 등 일부 의문스러운 돈 흐름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이른바 'BBK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잦아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의 김홍일 3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실에서 가진 중간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의 BBK와 다스 실소유 및 주가조작 개입 여부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서날벤츠 주가를 조종했다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는 김경준씨와

공모 여부가 정점인데 이 후보가 이 회사 인수 및 주식 매매에 참여했거나 그로 인해 이익을 봤다는 확인이 되지 않아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또 씨다스의 실소유주 여부와 관련, "씨다스의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부를 불문하고 이 후보에게 건넨 돈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씨다스가 BBK에 190억 투자 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씨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BBK의 실소유주도 김씨가 미국에서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고 이 후보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2001년 2월 김씨가 '본인이 100% 지분을 유지한다'고 쓴 자필 메모도 발견되는 등 이 후보 연루 혐의가 없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유서날벤츠 자금 390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하고 2001년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증권거래법 위반)했으며 2001년 5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미국 정부 장관 명의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저도 가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쉽고 뉘든지 다 소화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가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엔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 부채표 가스활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가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아산화, 고추틴크, 계피, 육두구, 현호색, 정향, 창출,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11가지 생약성분 -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이윤지